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10월 15일 ( 제920호 )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 봉우컬럼

###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여 이번 서울시청광장 구국기도 성회에 금식하며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께 주님의 축복이 금세와 내세에 충만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40일 전, 저는 이 구국기도 성회를 선포했습니다. 대형집회를 준비하기에는 그

리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아름답게 해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집회였다고 자부합니다.  
집회 전날 부슬부슬 비가 내렸지만 어느 누구도 걱정하지 않음은 우리에게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인스타디움 때도 그랬고, 작년 용산 전쟁기념관 때도 그랬듯 당일에 일기예보를 뒤엎고 태양이 찬란하게 작열했던 경험을 가졌기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다는 증표이기에 우리는 힘을 내어 구국 집회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 집회도 여러분의 기도와 희생, 헌신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야 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며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분명히 평화통일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고 하신 그 분을 우리는 믿습니다(막11:24). 그 분은 거짓말을 하

실 수 없는 분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만왕의 왕이시기에 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평화의 열차가 휴전선을 제거하고 힘차게 평양까지 기적을 울리며 달리게 될 그 날을요. 남북의 후손들이 손에 손잡고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할 것일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 날이 올 때까지 더욱 힘을 합쳐 이 일을 계속해 나갑시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초석 목사



#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당할 자 없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이 지난 10월 2일 서울시청광장에 속속 모여들었다. 기도하여 날씨를 바꾸고, 기도하여 풍전등화의 이 나라를 살릴 위대한 사람들이 한 뜻을 가지고 모인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는 10월 2일 정각 오후 3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개회되었다. 하늘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애국가가 서울 도심에 울려 퍼졌다. 이 순간 우리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더욱이 새벽 4시까지 비를 맞으며 단을 쌓고, 특별공연을 위해 40일 동안 애썼던 숨은 공로자들은 남다른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진 남성중창 그레이스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우리의 간절함을 대변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 본부장인 이시대 목사의 인도로 합심기도를 드렸다. 하만의 계략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울부짖어 기도했듯, 블레셋 침공으로 속수무책이었을 때 미스바로 모여 사무엘을 주축으로 기도했듯이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했다. 우리는 애통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음을 믿는다. 이어 서울 워싱턴이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로 하늘 문을 열었고, 현진옥과 전소정의 전통무용 ‘주기도’가 이어졌으며, 장연숙 전도사를 비롯한 5명의 혼성중창이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축복송을 열창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 워싱턴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로 동서남북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함을 아름다운 율동과 폭발적인 퍼포먼스로 표현해주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15분가량의 영상이 상영된 후 이 날 강사이신 이조석 목사님은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 누구도 당할 자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국가와 민족을 염려하고 사랑해서 황금같은 연휴를 반납하고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일촉즉발(一觸即發)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북한의 핵폭탄이 이 나라를 덮칠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당할 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듯이 죄와 의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이 나라가 음란하고 패역함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배역했음을, 교회가 타락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미세먼지가 사라지니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들이 무기를 쥘 것보다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기도였습

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날씨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고, 적군을 소경으로 만들어 전멸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했으면 당당히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됩니다. 피 한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을 이뤄달라고, 사면초가인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간곡히 아뢰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하나님이 이 나라도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의 침략과 탄압에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쓰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 여러분을 평화통일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참석한 것 자체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감사할 일입니다.

목회 32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기도한 것은 꼭 응답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법,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분명히 이루십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동독과 서독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뤄진 것입니다. 그 때가 우리에게도 곧 옵니다. 씨를 심으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누군가 레일을 깔면 기차는 달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건국될 때 이미 하나님께 봉헌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관리 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

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 사이에서 모세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세가 될 것이고, 세계에 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앞장섰습니다.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나라가 평화통일을 이룰 때까지,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설 때까지 우리 함께 이 일을 계속 합시다. 아멘.”

설교 후에 목사님은 만세 삼창을 선창하셨고, 손에 태극기를 든 모든 성도들이 이에 화답했다.

이 날의 클라이맥스는 교육부가 준비한 ‘여호수아 군대’였다. 대형태극기가 휘날리고 평화의 북소리가 하늘을 진동시켰다. 참석한 모든 자들이 일어나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평화의 물결을 이루는 장관을 펼쳤으며, 모두가 하나 되는 감격의 시간이었다.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그 분이 원하시면 평화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도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집회 후 단 철거와 주변 정리는 계속되었지만, 모두의 얼굴은 해 같이 빛나고 있었다.

모든 영광을 우리와 우리 교단을 후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다.

기자 신묘수



##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마치고

우리는 이 땅의 평화통일을 위해 9차에 걸쳐 기도성회를 계속해왔다. 이번 서울 시청광장 9차 성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큰 은혜 속에 무사히 잘 마쳤다. 수없는 수고들과 헌신들이 쌓여 이루어진 결과다. 총회장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전국, 전 세계의 교단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열정적인 헌신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어린이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새신자부터 오래된 성도들까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노력한 결과이다. 말로 갚을 수 없는 물심양면의 수고, 몸도 아까지 않고 비를 맞아가며 수고하신 봉사자들... 수없는 날들을 준비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와 후원하신 모든 분들의 숨은 노고를 낱알이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이다.

나는 기도했다. 평화통일을 넘어 이 일로 인해 교단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건강하고 사업과 자녀들이 번성하고, 풍성한 복을 가정 가정마다 넘치게 해달라고.

주님은 내게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응답하셨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찌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

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보리떡을 강청하니 내가 보리떡만 주겠느냐, 성령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보리떡과 성령을 어찌 비교하라. 가히 견줄 수 없는 일이다.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평화통일은 물론이고 성령충만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축복이다. 보너스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에게 유언으로 보물을 포도밭에 묻어 두었으니 먼저 발견한 자가 갖도록 해라 했더니, 봄이 되어 땅이 풀리자마자 두 아들은 포도원을 모두

파 제끼기 시작했다. 여름 끝에 포도원 모퉁이를 다 파고난 뒤 아버지가 거짓말하셨습니다고 지쳐 낙심한 채 뒤로 별령 나자빠져 하늘을 보니 전에 없던 실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그들이 얻은 선물은 실한 포도요, 그것보다 더욱 큰 것은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평생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보물을 캐낸 것이다. 우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선물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보리떡도 곧 받을 것이다.

이번 성회에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 본부장  
이시대 목사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  
(2017. 10. 2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





#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 성회를 준비하며...

예수중심교단과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늘 나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였다. 장소도 결정되기 전부터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이번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시청광장에서 한다.”는 선포와 함께 나에게 이 유 불문하고 무조건 서울시청광장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전하라고 지시하시는 것이었다. 즉시 시청 담당자를 만나 추석 때라도 있을 줄 알고 확인해보니 서울시와 연관되어 주관하는 행사들로 딱 차 있었던 터라 우리가 사용할 틈이 없었다. 그러던 중 ‘10월 2일 하루가 비였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준비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도 사용하겠냐’는 연락이 와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사용승인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렇게 사용 승낙을 받고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시간 내에 성회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역시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기도와 노력이라는 친구를 활용하니 시청담당자는 우리 성회 일정 바로 앞의 행사 관계자를 만나게 해주었고, 그의 협조로 성회 전날 오후 6시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허락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목도한 나는 자신감을 갖고 준비에 임하기 시작했다. 무대 자재를 임대하는 것부터 발품 팔아가며 찾아보니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맞추게 되었고, 솔선수범하는 장로님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직원들과의 점검 등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부분을 준비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준비 당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총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이것은 모두가 허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였다.

비는 내리고 있었지만 무대 설치하는 장로, 집사, 청년, 대학생, 교사 등이 개의치 않고 열심히 설치하는 모습은 가히 아름답다. 그 자체로 보였다.

그렇게 밤을 새가며 준비하는데 간식을 갖고 찾아오시는 권사, 집사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정말 몸둘 바를 몰랐다. 또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장을 찾아주신 총회장 목사님의 격려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불어 넣기에 충분하였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무대 설치하는 새벽 4시가 돼서야 일차 마무리를 하고 LED와 음향, 영상 등은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마치게 되었다.

밤새 계속 내리던 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날이 밝아짐과 동시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뜨거운 햇살을 비추며 젖은 무대와 의자 등을 모두 말려

주시는 것이였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최종 리허설을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대망의 기도성회가 시작되었다.

시작과 동시에 북받치는 감정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감동 그 자체라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나는 무대 뒤로 향하였다.

성회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참여하신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시고 몸도 사리지 않고 봉사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본부 준비위원장  
이석실 목사



## 족집게 과외 덕분이라니까요!

8월의 마지막 날,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심장은 거의 미칠듯이 뛰었다. ‘이번 성회에서 사회를 보게 될 수 있으니 기도로 준비하라’는 총회장님의 말씀이었다. 그냥 축복성회도 아니고,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거국적인 기도성회에 쓰임 받게 되다니... 솔직히 전화를 받고 처음 든 생각은 ‘과연... 내가?’ 하는 두려움과 한숨뿐이었다. 부끄럽지만 호렙산 뿔기나무에서 주께서 부르실 때 ‘저는 허가 둔하여...’라며 주저하던 모세의 변명이 곧 나의 고백이었다. “주님, 저는 허가 남보다 길어서 자주 발음이 꼬이고, 무대 울렁증이 있어 단에만 서면 머리가 하얗게 포맷 되며, 조금만 피곤해도 목소리가 짹짹 갈라지니 어찌합니까! 왜 하필이면 부족한 이 종입니까!” 교단 내에 인물도 잘나고 영적인 깊이가 남다른 목사님들도 참 많다. 경험과 학식을 갖춰 사회적 명망이 두터운 장로님들

이야 어찌 다 헤아릴까! 그런데 하필이면... 혹여 사회를 보다 ‘어버버’ 거리기라도 한다면 나로 인해 그 큰 성회가 엉망이 될 텐데, 전심으로 기도하며 전도에 힘쓴 성도들의 수고가 한 순간 빛바래질 터인데 아, 어찌란 말인가! 문득 5년 전 아내의 꿈이 생각났다. ‘네 남편을 사회자로 쓰리라!’ 하시던 총회장님의 말씀이 말이다.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싶었다. 어차피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러저러 해서 못 하겠다’는 이유는 총회장님께 통하지도 않을 것이다.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뿐이다! 그러나 정작 나오는 기도는 오로지 집회의 성공과 총회장님에 대한 것뿐이었다. 기도하는 동안엔 온통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에 사로잡혔다. 오히려 성령계신 집회와 총회장님을 위해 3일 금식까지 시키셨다. 그래도 실수하면 안 되겠기에 대본을 고쳐가며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통역하

는 박보배 집사님과도 수시로 맞춰보았다. 현장실습을 겸하여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도 무대에 올라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집회를 하루 앞두고 찾은 88체육관에 딱하니 총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시려고 말이다. 그렇게 예정에도 없던 최종리허설이 진행되었다. 당연히 사회자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다시! 그게 아냐, 다시! 한 번 더 다시! 할렐루 할렐루야”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양을 한 번 들어보시더니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셨다. 예전 집회 영상자료까지 찾아보여주시며 부족한 부분을 직접 다듬어 주셨다. 지난 30여 년 동안 대규모 집회를 인도하시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발성과 표정까지 세세하게 지도해주신 것이다. 그럼, 그렇지! 과연 족집게 과외 덕분이라니까? 지도를 받고 나니 주위 반응부터가 확연히 달라졌다. 뭔가 부족했던 것도 단번

에 바로 잡히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렇다고 쿵광 거리는 가슴과 후달거리는 다리가 진정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단에 올라 역사적인 시간, 역사적인 일에 쓰임 받게 되었다. 이는 오직 고린도전서 1장 26~2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함’ 임을 잘 안다.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이다. 또한 귀한 자리에 불러 세워주시고 세세하게 지도해주신 총회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릴 따름이다. 더불어 이번 기도성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준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할렐루야! 예수중심교단 여러분, 정말 멋져부려요!”

9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사회자  
신현명 목사